



오바마 대통령, 4,0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미 오바마 대통령은 9월 8일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세금 감면, SOC지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4,47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방안(American Jobs Act)을 발표하고 조속한 의회통과를 촉구함.
 - 이번 안은 지난해 12월 예산안에서 하향 조정(6.2% → 4.2%)한 근로자 급여세율을 3.1%로 추가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, 백악관은 이로 인한 경기부양효과가 2,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.
 - 또한,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학교시설 현대화에 300억 달러, 교통기반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등 SOC지출에 1,0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, 600만 명의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수당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.
 - 9월 12일 백악관은 일자리 창출방안의 재원조달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, 공화당 측이 이에 즉각 반발하는 등 일자리 창출방안의 입법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,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20일과 21일로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가 다가오면서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의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함.
 - 2차례의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가 개선되지 않고 고용시장도 침체를 지속하면서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연준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
 -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의 대안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(단기국채 매도/장기국채 매입)나 은행의 지급준비금 이자율 인하, 금리정책에 대한 명확화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함.

(Wall Street Journal 등 9/9)